

암몬 사람들(1)

구약성경의 암몬 사람들은 요단 동편 산지(Trans-Jordan)의 압복강에서 사해(Dead Sea) 동편의 아르논강까지 이르는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다. 오늘날 요르단의 영토인 암몬은 현재까지도 체계적인 고고학 발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다양한 고고학적 유물들을 찾을 수 없는 실정이다. 그나마 독일이나 미국과 같은 학자들의 노력으로 제라쉬와 페트라 등 고대의 유적지에서 역사적 자료를 얻을 수 있고 성경과 관련된 고대의 문헌과 유물들을 일부나마 찾아내고 있다. 지금까지 발견된 몇몇 문헌들과 유물들을 통해 적어도 암몬 사람들이 다른 가나안의 사람들처럼 북서 셈어를 사용했고 유사한 문화를 공유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성경에 등장하는 나하스(삼상 11:1)와 하눈(삼하 10:1) 같은 암몬 왕의 이름들은 히브리어와 모압어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다. 물론 암몬이 아람과 보다 가까운 위치에 있었고 한때 아람의 속국이었기에 아람어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 암몬은 가나안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농사를 생업으로 했다. 특별히 이집트와 아라비아에서 시작하여 에돔과 모압 땅을 거쳐 아람과 앗수르를 잇는 “왕의 도로”(King's way)는 지역 경제와 문화적 교류를 활발하게 했다. 성경에 의하면 암몬의 수도는 '랍바'로 왕의 성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삼하 12:26). 랍바는 현재 요르단의 수도인 암만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암만에서는 망대로 사용되었던 탑과 주전 10-8세기 암몬이 가장 번성했을 때에 만들어진 여러 가지 조각상들이 발견된 바 있다.

롯의 자손, 암몬

가나안 땅의 사람들 중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가장 우호적인 사람들을 암몬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창세기 19장에 의하면 소돔과 고모라의 몰락에서 몸을 피신한 롯과 그의 두 딸들 사이에 아이들이 태어났다 그 중 하나의 이름은 벤암미였고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었다. 아브라함의 혈족이 된 암몬 자손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 진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전쟁을 피할 수 있었다. 암몬 족속의 땅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에게 기업을 준 것이었고 롯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혈육관계였기 때문이다(신 2:19-20). 가나안 정복 이후 이스라엘의 지파들 사이에 기업을 나눌 때도 요단강 건너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의 땅은 압복 강을 경계로 암몬의 땅을 제외시켰다.

살만에셀 3세의 기록에 의하면 주전 853년 가나안의 국가들은 아람 왕 하닷에셀의 지휘 아래 연합군을 결성하여 앗수르에 대항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카르카르에서 전쟁을 치렀는데 이 연합군의 목록에는 12명의 왕들이 등장한다. 이 왕들 중에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것은 아합이다. 아합은 연합군 중 2000대나 되는, 두 번째로 많은 숫자의 병거를 보냈다. 또한 목록의 마지막 줄에는 루후비의 아들 암몬 왕 바아사라는 인물이 군사를 보냈음이 기록되어 있다. 앞서서도 언급한 것처럼 암몬에 관련된 역사적 자료들이 대부분 성서를 근거로 하고 있었기에 이 암몬 왕의 이름의 발견은 암몬의 연대기를 작성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주전 733년 디글랏빌레셀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정복할 때 암몬은 유다처럼 조공을 바치고 속국이 되었다. 디글랏빌레셀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암몬의 왕은 사니푸였고 그의 아들 푸두-일루 역시 앗수르에 충성을 다했다. 앗수르의 조공 목록에 의하면 암몬이 바친 조공의 양은 유다의 1/5이었다고 한다.

암몬은 고대 중동 지역의 정세에 재빠르게 합류했던 것으로 보인다. 앗수르가 바빌론에 멸망하자 암몬 왕 히살렐은 갈대아 곧 바빌론의 부대와 함께 유다를 공격했다(왕하 24:2). 아모스서 1:13은 암몬이 전쟁 중 아이 벤 여인의 배를 가를 정도로 잔인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예언자들은 암몬의 죄악은 결국 그들의 수도 랍바와 함께 그 족속이 기억되지 못하는 저주를 받으리라고 말했다(렘 49:1-6; 겔 21:28-32). 그러나 암몬 자손은 강한 국가는 아니더라도 유다의 바빌론에 의한 멸망 이후에도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로 온다는 소식에 암몬 사람 도비야는 호론 사람 산발랏과 함께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이에 대해 근심했다(느 2:10). 그는 성전이 중수되자 분노하고 저주를 퍼부었다(느 4장). 비록 암몬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과 혼인했지만(느 13:23), 그들의 유다 사람들에 대한 분노는 삭을 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주전 164년 헬라 문명의 통치를 받고 있던 유대인들이 마카비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반란을 일으켰을 때 암몬 사람들은 이 반란을 잠재우기 위해 대항했다. 그러나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패배했다.